

옹정제와 율곡의 봉당론 비교

한중 언론문화 차이의 배경에 관한 일고찰

이윤복

충남대학교 강사, 언론정보학 전공

kachibap@naver.com

- I. 머리말
- II. 송(북송), 남송 시대 대표적 봉당론
- III. 청조 옹정제의 어제봉당론
- IV. 율곡의 봉당론
- V. 종합고찰

I. 머리말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념적으로 경향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언론이 병존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언론은 주요한 정치적·사회적 사안을 둘러싸고 서로 현저하게 견해를 달리하는 정파적 경향을 띠다고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의 대표적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었던 〈KBS 미디어비평〉¹⁾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다룬 방송 내용의 특징을 검토한 분석(홍원식·김은정, 2013)에 의하면, 〈KBS 미디어비평〉은 이 기간 동안 피상적 보도 및 받아쓰기 관행과 더불어, 정파적 경향에 기인한 편파보도와 불공정성의 문제가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언론의 정파적 경향은 일반적으로 유교적 소통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현재 유교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언론은 정파성이라는 잣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와 그 상황이 현저하게 다르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중국에는 수많은 신문이 있으나 국가를 대표하는 신문은 〈인민일보〉이며, 이는 주요한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대해 주도적 견해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김택환 등(2012)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혁 개방 이후 인민일보는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이론의 체제를 선전하고 개혁 개방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성과를 홍보하여 국민들의 현실 상황을 알리며 민족정신을 전파하며 적극적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대외에 알렸으며 신속히 중국 내외 각 분야의 정보를 전달하여 왔다.”²⁾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인민일보〉는 당의 기관지라서 정파적 경향을 띠기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1970년대의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에 본격적인 개혁 개방 노선을 천명하여, 현재

1) KBS의 이 프로그램은 2003년 6월에 시작되어 2016년 4월에 방송이 종료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 '미디어포커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도중에 그 이름이 '미디어비평', '미디어 인사이트'로 변경되었다. 대개 'KBS 미디어비평'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2) 김택환 외, 『중국의 언론제도 및 산업 현황 연구』(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53쪽.

중국의 경제는 사실상 거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가깝다.³⁾ 이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현 체제라고 하는 요인만으로는 중국의 현재 언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면이 있다.

그럼 한국과 중국의 현재 언론, 특히 정파적 경향과 관련하여 한중 언론은 왜 이렇게 그 성격이 다른 것인가? 중국과 한국은 같은 유교문화권이긴 하나, 정파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붕당(朋黨) 문제와 관련하여 상이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송대 이후 양국의 대표적 붕당론이라 할 수 있는 청조 옹정제(雍正帝)와 율곡 이이의 붕당론 출현 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유교적 문인 붕당론은 송나라 때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한나라는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하고, 수와 당은 과거제를 실시하나 이는 매우 불완전했다. 기본적으로 과거제는 기존 귀족 지배 시스템의 보조 역할에 불과했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합격해도 임용이 보장되지 않았다. 임용은 사실상 해당 기관 수장의 직권에 속하는 문제였다.⁴⁾

하지만 송에서는 태조 조광윤에 의해 과거제도가 크게 정비된다. 합격은 대부분 임용을 보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문인 관료 사대부가 크게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송에서는 기존의 보수층과 신진 사대부의 대립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신진 관료사대부의 붕당 결성을 옹호하는 견해도 나타난다. 본문에서 비교적 자세히 검토하는 북송 구양수의 붕당론과 남송 주자의 붕당론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원, 명에 이어 성립된 만주족 왕조인 청조에서는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종래의 붕당론에 대한 이의 제기가 나타난다. 즉, 청나라 전기 옹정제는 즉위 초에 북송 구양수의 붕당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어제붕당론(御製朋黨論)을 스스로 작성하여 반포한다. 또한 한국에서도 사림이 중앙정치的主역이 되는 조선 중기에 종래의 송의 붕당론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나, 이와 더불어 독자적인 견해도 더하는 율곡의 붕당

3) 1978년에 거행된 중국공산당 제11차 삼중전회(三中全會)는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세력이 장악하고 본격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천명한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黑貓白貓)론은 유명하다.

4) 남경태, 『종횡무진 동양사』(그린비, 2013), 159쪽.

론이 나타나게 된다.

송대 이후 사실상 한중 양국을 대표하는 봉당론이라 할 수 있는 이 두 논의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이 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① 옹정제의 어제봉당론과 율곡의 봉당론이 나타난 사회적 맥락, ② 옹정제와 율곡의 봉당에 대한 생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는 옹정제의 어제봉당론과 율곡의 주요 상소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로 옹정제의 봉당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연구 상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인 연구자 등예권(2004)은 옹정제가 이미 즉위하기 전부터 한족 문인들에 의해 촉발된 봉당의 폐해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고, 즉위 후 즉시 이 문제에 대해 대처했다고 지적한다.⁵⁾

대표적인 일본인 연구자들도 옹정제의 치적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미야자키 이치사다, 2001; 이시바시 다카오, 2009)⁶⁾, 어제봉당론에 대해서도 원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소개하고 있다(宮崎市定, 1971; 石橋崇雄, 1996).⁷⁾

또한 옹정제의 용인(用人)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이러한 논의에서는 옹정제가 만주인과 한족의 구분 없이 인재를 고루 등용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배윤경, 1977; 박노현, 2006).

그리고 여러 문헌을 활용하여 옹정제의 봉당에 대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있다(이개석, 2013). 다만 이 연구는 중국 한족의 문인문화를 기준으로 옹정제의 치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여러 연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⁸⁾

5) 등예권 저, 황보경 역, 『치국』(시아출판사, 2004), 618쪽.

6) 예를 들어 미야자키 이치사다(2001)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순치제의 아들이 4대 강희제이고 강희제의 아들이 옹정제이므로 옹정제는 건국 초부터 따지자면 5대제이고 청조가 베이징에 입성한 이후부터 헤아리면 3대제가 된다. 왕조가 흥할지 쇠할지는 대체로 3대제 정도에 결판나므로 옹정제는 청조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옹정제의 즉위는 서기 1722년. 그러니까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보다는 조금 늦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보다는 약간 앞선다. 옹정제는 이들 군주와 충분히 어깨를 견줄 만한 치적을 이룩하였다”(25쪽).

7) 참고로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는 『청조 실록』의 한문본을 참조하여, 그리고 이시바시 다카오(石橋崇雄)는 만주어본을 참조하여 어제봉당론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8) 이 논문의 결론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 글은 옹정대 봉당문제를 통하여

한편, 공론과 언론의 문제와 관련된 율곡의 봉당론에 관한 연구는 의외로 그다지 많지 않다. 현재 공론과 언론의 문제와 관련된 율곡의 봉당론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정연구(1990), 이상희(1993), 김영수(2010), 야마다 에이코(2008)에 의한 연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상희(1993)는 다양한 문헌에 나타난 율곡의 공론 사상의 성격에 대해 포괄적·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율곡의 공론사상 형성과 그 변화의 과정에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된다.⁹⁾

또한 김영수(2005)도 조선 후기에 율곡의 공론사상이 현실 정치에 실제로 얼마나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김영수는 조선 후기에 공론이 당론(黨論)에 종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도 율곡의 공론사상 형성과 그 변화의 과정에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은 듯하다.

한편 정연구(1990)는 먼저 율곡의 공론 개념, 그리고 율곡의 언론 확대에 관한 논의에 대해 검토한다. 이어서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사회 비교의 시점에서, 서양사회에서 언론이 정치권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둔 비판자(批判者) 역할을 담당해왔다면, 전통 동양사회에서 언론은 통치행위의 일부로 통치행위의 교정자(矯正者) 역할을 담당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언론의 정파적 성격이라는 문제는 그다지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⁰⁾

마지막으로 야마다 에이코(2008) 역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율곡의 봉당 논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야마다 에이코는 봉당에 대한 율곡의 관점의 변화를 당시 조선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나타난 율곡 사상의 성장 변화라기보다 일본인이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전형적

중국사상 정치적 결사의 발전을 이해하고, 18세기 중엽 특히 건륭시대 번영의 초석을 놓은 옹정제가 주형(鑄型)해내고자 했던 집권군주제하의 중세적 정치문화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이를 통해 낙후한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민족 왕조 청조의 지배가 중국의 정치문화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자 하였다”(39쪽).

9) 원래 이 논문은 이상희가 1980년 12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Seminar on Communication Theory from Eastern and Western Perspectives”에서 발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인데, 같은 내용이 이상희의 저서, 『조선조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현상 연구』(나남, 1993)에 수록되어 있다(제4장 이율곡의 커뮤니케이션 사상). 또한 이 논문은 동일한 제목으로 『율곡학연구 총서: 논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7)에도 수록되어 있다.

10) 이 논문은 『율곡학연구 총서: 논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7)에도 수록되어 있다.

틀이라 여겨지는 ‘양의성(兩意性)’이라는 시각으로 파악하고 있다.¹¹⁾

즉, 아마도 에이코는 율곡의 봉당관이 정치적 상황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는 형태의 문제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애초에 율곡의 봉당관 자체가 양의적이었던 관점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기의 논의 이외의 관련 연구로는 경세(經世)와 공론의 관계에 관한 정치학적 시각의 여러 논의가 있다. 예를 들어 황의동(2003)은 공론에 기반하여 국시가 정해진다는 율곡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러한 율곡의 견해는 현대 한국 사회의 통일, 북핵 등의 문제와 관련한 정책 결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손홍철(2013)은 율곡이 철저하게 군주·사림(관료)·백성의 소통을 강조하였고, 특히 율곡이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상익(2002)은 율곡의 공론 개념을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일반의지론과 비교의 시점에서 검토하여, 이러한 유교적 개념이 현대 자유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한다.¹²⁾

이처럼 이러한 연구에서도 율곡의 공론 개념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율곡의 공론 개념이 왕도정치, 정책 결정,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공론과 언론의 관계, 특히 현대 언론문화와의 관계라는 문제는 다소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중국 송의 대표적 봉당론의 내용에 대해 검토한다.

11) 일반적으로 이러한 양의성은 일본인이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전형적 틀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고 하는 말의 뉘앙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겉(表)과 다른 속(裏)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나 ‘오모테(表)와 ‘우라(裏)’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당연히 병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이윤복, 「오모테와 우리(表と裏)」,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편, 『일본문화사전』(문, 2010), 444쪽.

12) 이 논문은 『율곡학연구 총서: 논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7)에도 수록되어 있다.

II. 송(북송), 남송 시대 대표적 봉당론

1. 북송 구양수의 봉당론

구양수(1007-1072)의 봉당론은 북송 전기의 대표적 당쟁인 범리지쟁, 그리고 범리지쟁에 이어 실시되는 1043년(경력 3)의 경력신정과 관련이 깊다. 1033년(인종 2)에 시작되는 범리지쟁은 범여중을 중심으로 한 신진세력과 여이간을 중심으로 구태의연한 국정운영을 고수한 구세력 간의 다툼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여이간은 재상이었고, 범여중은 권지개봉부(權知開封府, 개봉시장)였는데, 여이간에 밀려 범여중을 중심으로 한 30대의 젊은 관료사대부들은 두 차례에 걸쳐 지방으로 좌천된다.

하지만 1038년에 건국된 서하(西夏)의 침공에 따른 오랜 전쟁으로 국가재정이 크게 악화되어, 북송의 인종은 1043년(경력 3) 여이간을 재상에서 물러나게 하고 범중엄을 중용해 국가의 난제들을 수습하게 한다.¹³⁾ 이에 부재상 격인 참지정사에 임명된 범중엄은 조진십사(條陣十事)를 올려 관리의 승진과 강등 제도를 엄격히 하고, 관료 자체의 관직 등용 특권을 제한하며, 지방장관의 선임을 강화하고, 지나치게 형평에 맞지 않는 관리의 직전(職田)을 조정하며, 노역을 경감시키는 것 등과 같은 각종 개혁적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였다.

이러한 건의는 한 차례 인종에게 받아들여져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신정(新政)의 조치는 귀족 관료와 대지주의 이익에 저촉되었기 때문에 반대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구체적으로 이미 물러난 여이간의 뒤를 이어 범중엄 등 개혁파를 공격하는 우두머리가 된 하송 등은 범중엄, 구양수, 여정, 채양 등이 봉당을 결성하였다고 공격했으며, 인종도 이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지간원(知諫院)에 임명되어, 채양, 여정, 왕소와 함께 간관(諫官)의 일을 담당하고 있던 구양수는 '봉당론'을 써서 인종에게 올리게 된다.¹⁴⁾ 구양수의 봉당론은 북송시대의 많은 봉당론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¹⁵⁾, 이 봉당론에서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군자와

13) 쉬홍성·야오룽타오 저, 이진영 역, 『천추홍망: 송나라』(따뜻한 손, 2010), 322-326쪽.

14) 광정중 저, 황일권 역, 『구양수 평전』(학고방, 2009), 84-85쪽.

15) 쉬홍성·야오룽타오 저, 이진영 역, 앞의 책(2010), 319쪽.

소인의 구분, 그리고 군자들의 봉당(진봉)과 소인들의 봉당(위봉)의 구분이 강조된다.

봉당에 관한 논쟁은 예부터 있으나, 폐하께서는 군자들의 봉당과 소인들의 봉당을 구분해주셨으면 합니다. 군자들이 지향하는 바가 같아서 봉당을 결성하거나 또는 소인들이 공동의 이해득실을 위해 봉당을 결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나 신이 새삼스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인들에게는 그 무슨 봉당이 있을 수 없고 군자들에게만 봉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소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문과 녹봉이고, 그들이 탐하는 것은 재물입니다. 그들은 이익이 일치하면 서로 잠깐 동안 결탁하여 이른바 봉당을 만드는데 이는 허위적인 봉당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문을 얻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싸우거나 또는 이문을 다 차지하여 그들 사이의 정분이 약해지면 오히려 서로 물어뜯습니다. [...] 그러나 군자는 이와 달리 도의를 견지하고 신의를 지키며 자신의 명예를 소중하게 지키려 듭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기준으로 수신하기에 공동의 믿음을 갖고 함께 정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종일관한 것이야말로 군자들의 봉당입니다. 때문에 군주가 소인들의 봉당을 배척하고 군자들의 봉당을 증용하면 천하의 대사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¹⁶⁾

구양수가 이러한 봉당론을 인종에게 올린 이후에도 반대파의 공격이 계속되고, 이 무렵 서하와의 전쟁도 끝나면서¹⁷⁾, 인종은 급박한 정세가 완화되었다고 판단해 정치개혁에 대해 흥미를 잃게 된다. 그래서 인종은 조서를 내려 백관이 봉당을 결성하는 행위를 경고하였고, 경력 5년(1045)에는 범중엄, 부필, 한기 등이 잇달아 조정에서 쫓겨나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한편 이러한 범려지쟁, 경력당의 이후, 북송에서는 경력신정의 개혁보다 더 큰 규모의 개혁운동이 왕안석(1021-1086)의 신법당 주도로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사마광을 대표로 한 반대세력인 구법당이 등장하여 양자 사이에 당쟁이 발생하여 이는 결국 1127년 북송 멸망의 큰 원인이 된다. 이 무렵 한때 왕안석의 선배로서 개혁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던 구양수는 구법당의 일원이었다.

16) 니우산·빠산쓰 지, 임찬혁 역, 『소통의 정치학』 상소: 중국편』(달과소, 2008), 22쪽.
“臣聞朋黨之說，自古有之，惟幸人君辨其君子小人而已。大凡君子與君子，以同道爲朋，小人與小人，以同利爲朋，此自然之理也。然臣謂小人無朋，惟君子則有之，其故何哉。小人所好者，祿利也，所貪者，財貨也。當其同利之時，暫相黨引以爲朋者，僞也，及其見利而爭先，或利盡而交疏，則反相賊害。[...] 君子則不然，所守者道義，所行者忠信，所惜者名節。以之修身，則同道而相益，以之事國，則同心而共濟，終始如一，此君子之朋也。故爲人君者，但當退小人之僞朋，用君子之眞朋，則天下治矣。”

17) 7년 전쟁 끝에 송과 서하는 화의를 맺어 송은 서하에게 매년 은 5만 냥, 비단 13만 필, 차 2만 근을 주고 무역을 재개하기로 한다. 남경태, 앞의 책(2013), 167쪽.

2. 남송 주자의 붕당론

한편, 1126년 북송의 멸망과 동시에 신법, 구법 당의 치열한 당쟁은 일단 종식된다. 그러나 당쟁 그 자체가 종언을 고한 것은 아니었다. 계속해서 신구 양당의 당쟁은 남송시대가 되면서 형태를 바꾸어 대금(對金)정책을 둘러싸고 재연된다. 왕안석의 흐름을 계승한 화의파와 성리학(도학)을 신봉하는 주전파의 싸움이 그것이다.

진회를 중심으로 하는 화의파가 정권을 잡게 되자, 1144년에 정이천의 학문과 같은 곡학(曲學)을 축출해야 한다는 화의파의 상소가 황제의 승인을 얻고, 이후 성리학은 진회의 죽음까지 약 12년간 공적으로는 학문적 시민권을 상실한다.

나아가 순희 15년(1188) 6월에, 59세의 주자(1130-1200)가 병부랑(兵部郎)에 임명되었지만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사퇴하자, 임율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주자를 무고한다. 이후 경원 2년(1196) 무렵에는 성리학이 위학이라 폄칭(貶稱)되기 시작한다.¹⁸⁾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주자의 붕당에 대한 견해는 주자가 1191년(소희 2, 62세) 4월 24일, 그리고 7월 10일 두 차례 승상 유정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첫 번째 편지에서 주자는 다음과 같이 군자와 소인의 구분을 강조하며, 붕당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나아가 주자는 임금을 끌어들여 당인으로 만드는 것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른바 인군위당(引君爲黨)론을 전개한다.

바라건대 승상께서는 먼저 어진지 그렇지 못한지, 충성스러운지 사특한지를 분별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십시오. 그들이 과연 어질고 충성스럽다면 뚜렷하게 나아가게 해주시되, 오직 그 당이 많지 않아서, 함께 천하의 일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만을 걱정하십시오. 그들이 과연 간사하고 사특하다면 뚜렷하게 내쫓으시되, 오직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서 내가 어진 이를 등용하려는 노력에 해를 주지 않을까만을 걱정하십시오. 군자들이 편당 짓는 것을 싫어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이 당인이 되는 것도 꺼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몸이 당인이 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인군을 끌어당겨 당인으로 만드는 것도 꺼리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의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¹⁹⁾

18) 미우라 쿠니오 저, 김영식·이승연 역, 『인간 주자』(창작과 비평사, 1996), 232-239쪽.

19) 「유승상에게 보내는 편지 1(與留丞相書1)」, 『주자대전』 28권(전남대학교 철학연구소)

한편 첫 번째 편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두 번째 편지에서도 주자는 군자와 소인의 철저한 구분을 강조한다. 특히 이 편지에서는 왕안석을 예로 들어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한다.

선배들 가운데는 가우 원풍 연간에는 지향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겸해서 받아들이고, 함께 등용했기 때문에 당시에 봉당의 재앙이 조정에게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이들이 있었고, 세상에서도 대부분 이것을 명언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일찍부터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나온 의론이라고 여겼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두루 소인만을 등용하고, 군자들을 모두 저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 나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소인들을 모두 다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등용하는 것이 참으로 후대의 법도가 될 만하다고 여긴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시에 한기, 부필의 무리들을 모조리 기용하고 아울러 왕안석 채경의 무리를 모두 내쳤더라면 끝내 경력 연간의 큰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회령 연간의 쪽정이 같은 정치를 개혁했을 것이니, 어찌 충분히 완전하고, 충분히 선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²⁰⁾

이처럼 주자의 편지에 나타난 봉당에 대한 견해는 앞에서 검토한 구양수의 봉당론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청조 옹정제의 어제봉당론

1. 옹정제 개관: 청조와 옹정제의 위치

한편, 원, 명에 이어 등장한 청은 만주족 왕조이다. 옹정제는 언어나 인종적 차원에서 우리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이 이민족 왕조의

육센터, 대구한의대학교 국제문화연구소, 2010), 324쪽.

“願丞相先以分別賢否忠邪爲己任，其果賢且忠耶，則顯然進之，惟恐其黨之不衆而無與共圖天下之事也；其果姦且邪耶，則顯然黜之，惟恐其去之不盡有以害吾用賢之功也。不惟不疾君子之爲黨，而不憚以身爲之黨；不惟不憚以身爲之黨，是又將引其君以爲黨而不憚也。如此，則天下之事其庶幾乎？”

20) 「유승상에게 보내는 편지 2(與留丞相書2)」, 『주자대전』 28권(전남대학교 철학연구고 육센터, 대구한의대학교 국제문화연구소, 2010), 333쪽.

“前輩有論嘉祐·元豐兼收竝用異趣之人，故當時朋黨之禍不至於朝廷者，世多以爲名言。意嘗謂此乃不得已之論，以爲與其偏用小人而盡棄君子，不若如是之猶爲愈耳。非以爲君子不可專任·小人不可盡去，而此舉眞可爲萬世法也。若使當時盡用韓·富之徒而并絀王·蔡之屬，則其所以卒就慶曆之宏規·盡革熙寧之秕政者，豈不盡美而盡善乎？”

5대 황제이다.

먼저 청은 1대 태조 누루하치에 의해 1616년에 건국된다. 누루하치는 19세에 아버지로부터 소그룹(남자 6명, 여자 5명, 말 2필, 소 4두)을 인계받아 분가하고, 생계를 위해 장사와 매잡이도 한다. 25세 때 조부와 부가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거병하여, 이후 약 30년 만에 여러 여진족 부족을 통합하여 1616년(천명 1) 여러 여진족의 버일러(beile, 족장)들로부터 '한'의 존호를 받기에 이른다.²¹⁾

이때 기본적으로 군대조직인 팔기제를 정비하고, 이 팔기제 조직에 의지하여 당시의 복합 부족 국가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 하지만 1대 태조 누루하치(1616-1626)와 2대 태종(1627-1643)은 만주에서 거주하였고, 3대인 순치제(1644-1661)가 비로소 1644년에 베이징에 입성하게 된다.²²⁾

이어서 4대 강희제(1662-1722)가 즉위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강남 지역은 완전히 평정된 것이 아니었다. 1673년(강희 12)에 발발한 삼번의 난은 1681년까지 지속된다. 삼번의 난 이후, 비로소 만주족의 청은 그때까지 한족이 거주해온 중국 대륙의 지배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족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소수가 다수를 통치하는 상황이었고²³⁾, 중국의 강남에서는 중화사상에 기반한 반청복명(反淸復明) 구호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강희제는 중국식 통치제도를 수용하여, 주자학을 장려하고 과거제를 실시하여 종래 중국 한족의 제도와 문화를 바탕으로 제국을 통치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강희제 말년에는 문인 붕당이 성행하여 그 폐해가 상당했으며, 이에 대해 강희제 자신은 물론, 강희제에 이어 1722년 45세의 나이로 즉위한 5대 옹정제(1678-1735)도 숙지하고 있었다.²⁴⁾

이러한 가운데 옹정제는 즉위 초인 옹정 2년에 직접 저술한 『어제붕당론』을 반포(頒布)한다. 옹정제의 대표적 붕당론이라 할 수 있는 어제붕당

21) 이시바시 다카오 저, 홍성구 역, 『대청제국 1616-1799』(휴머니스트, 2009), 99쪽.

22) 미야자키 이치사다 저, 차혜원 역, 『옹정제』(이산, 2001), 25쪽.

23) 이와 관련하여 이시바시 다카오의 저서 『대청제국 1616-1799』의 부제는 “100만의 만주족은 어떻게 1억의 한족을 지배하였을까?”이다. 또한 마크 엘리엇(M. C. Elliott)은 “중국인에 비해 대략 350대 1로 소수였던 만주족이 어떻게 중국을 정복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거의 300년 동안이나 통치할 수 있었는가?”라고 말한다(34쪽).

24) 등예권 저, 황보경 역, 앞의 책(2004), 618쪽.

론은 크게 ① 문인 봉당문화의 해악, ② 봉당 문제의 연원과 이에 대한 논리적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 검토한다.

2. 옹정제의 봉당에 대한 견해

1) 문인 봉당문화의 해악

옹정제는 어제봉당론에서 먼저 다음과 같이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

짐이 생각하기에 하늘은 귀하고 땅은 천하듯이 군주와 신하의 구분은 정해져 있다. 신하 된 자는 의당 단지 군주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의식해야 한다. 단지 군주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인식한다면 그 정의(情意)는 견고히 연결되어 굳건히 가치판단을 군주와 한가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일덕일심이고, 위와 아래가 합치하는 것이다.²⁵⁾

이어서 옹정제는 군주가 사람을 평가하여 기용할 때의 마음가짐, 지극히 공평하게 처리해야 함에 대해 여러 예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언급한다. 먼저 『맹자』 「양혜왕장구(梁惠王章句)」 하편에 나오는 내용, 즉 나라의 임금이 현인을 모으고, 불초(不肖)를 물리칠 때에는 주변의 측근, 대부, 국민(國人)과 의견의 일치를 본 다음에, 반드시 재차 자세히 조사해, 그 현능(賢能), 불선(不善)의 상황에 대해 잘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서경』 「주서(周書)」 홍범(洪範)편에 나오는 내용, 즉 사람을 추천하거나 배제할 때에는 반드시 불공평한 처사를 경계하여, 왕도를 공정하고 끝은 상태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한다. 하지만 이처럼 사람을 기용하고자 평가할 때, 신하 된 자는 군주와 같지 않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하 된 자는 일부러 사심(私心)에 치우쳐 봉당을 만들어 그 안에서만 사람을 추천하거나 배제하는 가운데 시(是)를 시라 하고, 비(非)를 비라 하기에, 군주 된

25) 『世宗憲皇帝實錄』. “朕惟, 天尊地卑, 而君臣之分定. 爲人臣者, 義當惟知有君. 惟知有君, 則其情固結不可解, 而能與君同好惡, 夫是之謂一德一心而上下交.”

지는 이런 상황을 염려한 나머지, “잘못하면 간계에 속게 된다. 차라리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이는 붕당의 절대적인 해악이다.²⁶⁾

특히 옹정제는 사람을 평가할 때 신하가 그 인물에 대해 의견을 상주(上奏)할 자리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자리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언제나 뒤에서 다른 소리를 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이는 서경(書經) 우서(虞書) 익직(益稷) 편에 나오는 요순시대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고 말한다.

2) 붕당 문제의 연원과 이에 대한 논리적 비판

이어서 옹정제는 이러한 붕당의 폐해는 송대 구양수의 붕당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양수가 말하는 진붕, 곧 군자의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당은 모두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오직 소인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피력한다. 구체적으로 옹정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짐의 생각에는 군자에게 붕과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고, 다만 소인에게만 존재한다고 말하고 싶다. 구양수의 논리에 따르면 결당(結黨)하고서 마지막까지 이를 지키는 사람은 군자이며, 당을 해산하여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자는 반대로 소인이 된다. 만약 구양수가 지금 세상에 태어나 이 논리를 주창했다면, 짐은 반드시 그를 죽여서 세상을 미혹시킨 죄를 바로잡을 것이다.²⁷⁾

이어서 『논어』 「술이편」 등을 예로 들면서 예전에는 그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오류’에 나오는 여러 인간관계를 예로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다.

붕당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붕우의 도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등용되어 관위에 취임하면 군주-신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의(公義)이고, 붕우라고 하는 것은 사정(私情)이다. 신하된 자는 공(公)을 위해 사(私)를 버려야 한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정 때문에 공의를 저버리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말인가? 군주와 부모는 모두 중하나, 일단 군주를 섬기게 되면 몸을 군주에게 기탁한 것이 되어 부모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데, 붕우는 말할 필요조차 있겠는가? 붕(朋)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당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가당하거나 한 것인가?²⁸⁾

26) 『世宗憲皇帝實錄』. “人臣乃敢溺私心，樹朋黨，各徇其好惡，而爲是非，至使人君懲偏聽之生姦，謂反不如獨見之公也，朋黨之罪，可勝誅乎.”

27) 『世宗憲皇帝實錄』. “朕以爲君子無朋，惟小人則有之. 且如修之論，將使終其黨者，則爲君子，解散而不終於黨者，反爲小人乎. 設修在今日而爲此論，朕必飭之以正其惑.”

옹정제는 결론부에서 재차 만주족과 한족, 문인과 무인, 그리고 대소(大小)의 백관이 온전히 한마음이 되어, 군주와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사람을 추천하거나 혹은 배제하여 논어에서 말하는 명훈(明訓)을 준수하고, 봉당의 폐습을 완전히 불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옹정제는 봉당 자체를 강력하게 부정하며 그 대안으로 군주 중심의 강력한 통합을 주장한다.

IV. 율곡의 봉당론

1. 율곡 개관: 봉당의 전개와 율곡

그럼 율곡은 어떠한가? 먼저 율곡에 대해 간단히 개관한다. 율곡은 1536년(중종 31) 강릉에서 태어나 인종, 명종 시대를 거쳐 1584년(선조 17) 4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²⁹⁾ 율곡은 1564년(명종 19) 29세 때 식년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호조 좌랑(정6품)이 된다.

먼저 30대에는 홍문관의 교리, 부응교, 응교, 직제학, 부제학 그리고 사간원의 사간, 대사간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주로 홍문관이 주관하는 경연(經筵)에서 선조에게 경장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더불어 1569년에 『동호문답』, 그리고 1575년에 제왕학인 『성학집요』를 저술하여 선조에게 바친다.³⁰⁾ 이후 40대에도 율곡은 청요직을 계속 이어나간다. 언론 삼사 수장파 더불어, 호조판서, 이조판서, 병조판서 그리고 의정부 찬성 등의 중책을 역임한다.³¹⁾

한편 이 시기에 조선왕조는 사회의 시대에서 봉당, 곧 당쟁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율곡은 이 과정에 깊이 관련된다. 즉, 조선왕조사회에서는 연산군 대의 두 번의 사회에 이어, 1519년(중종 14)에 기묘사화, 1545년(명종 1)에 을사사화가 발생한다.

28) 『世宗憲皇帝實錄』. “朋黨不可有, 而朋友之道不可無. [···] 今既登朝泄官, 則君臣爲公義, 而朋友爲私情. 人臣當以公滅私. 豈得稍顧私情而違公義. 且即以君親之並重, 而出身事主, 則以其身致之於君, 尙不能爲父母有, 況朋友乎, 況可藉口於朋以怙其黨乎.”

29) 율곡의 본관은 덕수이다. 구체적으로 지금의 개경 인근인 황해도 개풍군 덕수리이다.

30) 이 시기 선조의 나이는 16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청년기였다.

31) 한영우, 『율곡 이이 평전』(민음사, 2013), 84쪽.

이러한 가운데 명종 말, 선조 초에 영의정을 역임한 이준경이 사망 직전인 1572년(선조 5) 7월 7일 선조에게 조정에 봉당의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하는 유차(遺劄)를 올린다.³²⁾ 그러자 한 달 뒤인 1572년 8월, 병환으로 홍문관의 부응교(종4품)를 사직하고 파주에 가 있던 율곡이 이준경의 유차를 통렬히 반박하는 ‘논봉당소(論朋黨疏)’를 선조에게 올리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1575년(선조 8, 40세) 7월에 조정에서는 핵심 요직이라 할 수 있는 이조전랑직을 둘러싸고 동서분당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난다. 이 해 3월에 홍문관 부제학에 취임한 율곡은 1575년 10월에 동서분당을 염려하여 영의정 노수신에게 김효원과 심의겸을 모두 외직으로 보내자고 요청한다. 이에 대해 노수신도 동의하면서 결국 두 사람은 모두 외직으로 좌천된다.

하지만 이후에도 동인과 서인의 대립은 그치지 않았고, 율곡은 1578년(선조 11)에 해주 석담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다음해인 1579년(선조 12, 44세)에 동서분당 이전 시기와는 크게 다른 봉당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사대사간 겸 진세척동서소(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를 올린다.

이후 5년 뒤에 율곡은 생을 마감한다. 사망하기 한 해 전인 1583년(선조 16)에 올린 ‘진시사소(陳時事疏)’³³⁾에도 봉당에 관한 견해가 주로 초반부에 언급되어 있으나, 1579년에 선조에게 올린 사대사간 겸 진세척동서소는 사실상 율곡의 봉당 문제에 관한 최종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동서분당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율곡의 봉당에 대한 견해에 대해 검토한다.

2. 율곡의 봉당에 대한 견해

1) 동서분당 이전

먼저 1572년(선조 5) 7월에 이준경이 선조에게 조정에 봉당의 움직임이 있다고 올린 유차(遺劄)에 대한 반박이라 할 수 있는 논봉당소 초반부에서 율곡은 다음과 같이 봉당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며, 이는 구양수와 주자도 언급한 것이라고 말한다.

아! 봉당의 이론이야 어느 시대인들 없었습니까. 오직 그들이 군자인가 소인인가를

32) 이성무, 『영의정의 경륜: 이준경·이산해·오윤겸·이경석』(지식산업사, 2012), 115쪽.

33) 이 소는 계미봉사(癸未封事)라고도 한다.

살피는 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진실로 군자라면 곧 천 명이나 백 명이 봉당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많을수록 더욱 좋겠습니까만, 진실로 소인이라면 곧 한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물며 봉당을 이루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 자코로 봉당을 논한 것으로는 구양수의 봉당론보다 더 조리 있게 쓴 것이 없고, 주자가 유정에게 답하는 글보다 더 절실하게 쓴 것이 없습니다.³⁴⁾

이어서 율곡은 이준경이 지적한 봉당 움직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비판한다.

다만 오늘날의 일을 두고 얘기한다면 이준경의 이른바 봉당이란 것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관간들이 이미 없어졌고 나머지 도당들도 기식조차 죽었으니, 비록 소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될는지 몰라도 감히 공연히 여럿이 합쳐서 남을 비판하는 일이 없고 무리를 모아 함께 악한 짓을 하는 흔적도 없으니 분시 봉당이라 지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오직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공을 위해 봉사하고 사사로움을 막는 사람은 손을 꼽아 보아도 몇 명 없지마는 공론은 그들에 의지하여 얼마간 행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준경의 이른바 봉당이란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³⁵⁾

이처럼 율곡은 군자와 소인의 구별, 봉당의 옹호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⁶⁾ 이 시기에 이준경은 재상의 위치에 있었고, 율곡은 홍문관 부응교(종4품)에 불과하였다. 이준경은 퇴계 이황도 인정한 조선의 재상이었지만³⁷⁾, 율곡은 당시의 시국을 앞에서 살펴본 북송의 구양수와 마찬가지로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도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논봉당소(論朋黨疏)」, 『율곡전서 1』(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390쪽.

“嗚呼，朋黨之說，何代無之。惟在審其君子小人而已。苟君子也，則千百爲朋，多多益善。苟小人也，則一人，亦不可容也。況於成黨乎。[...] 自古論朋黨者，莫辨於歐陽脩之論，莫切於朱子答留正之書。”

35) 「논봉당소(論朋黨疏)」, 『율곡전서 1』(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391쪽.

“第以今日之事言之，未知浚慶之所謂朋黨者，指何人耶。當今權姦已盡，餘孽熄氣，雖不可謂無小人，而莫敢公然翕訾，無聚徒同惡之迹，則固不可以朋黨目之也。[...] 惟是愛君憂國，奉公杜私者，屈指無幾，而公論依之得以稍行，浚慶之所謂朋黨者，無乃指此等人乎。”

36) 율곡은 1575년(선조 8)에 선조에게 바친 『성학집요』의 용현(用賢)편에서도 군자와 소인의 구분, 봉당의 옹호를 주장하고 있다.

37) 1569년(선조 2) 3월에 이황이 물러갈 때 왕이 조신 가운데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묻자 이황은 이준경을 추천하였다. 이성무, 앞의 책(2012), 110쪽.

2) 동서분당 이후

한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575년 이조전랑직을 둘러싸고 동서분당 움직임이 나타나고 홍문관의 부제학으로서 율곡은 중재하는 입장에 있었다. 개인적으로 율곡은 심의겸의 청송 심씨와 조상 때부터 관련이 많았다. 특히 율곡은 심의겸의 조부 심통원으로부터 관료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³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곡은 재상 노수신에게 김효원과 심의겸을 모두 외직으로 보내자고 요청하고 이러한 제안은 수용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이후에도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1579년 율곡은 동서분당 문제를 정리한 사대사간 겸 진세척동서소를 선조에게 올린다.

율곡은 이 상소에서 양시양비(兩是兩非), 조제(調劑), 그리고 사류(士類)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먼저 율곡은 양시양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사이 사헌부의 상소는 감히 노골적인 배척을 시작하여, 서인을 사당이라 하고 심의겸을 소인이라 하니, 의논의 과격함이 이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김효원도 신이 아닌 사람이고 심의겸도 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됨을 논한다면 모두 쓸 만한 사람이고, 그 과실을 말한다면 둘 다 잘못되었다 하겠습니까. 만일 한 사람은 군자요, 한 사람은 소인이라 한다면 신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³⁹⁾

이어서 율곡은 두 사람의 과실과 관련하여, 심의겸은 외척임에도 불구하고 피혐(避嫌)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며, 김효원이 심의겸을 비방하여 스스로 원수를 갚는다는 말을 듣게 된 것 또한 큰 잘못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이어서 율곡은 자신의 주장이 모호하다는 주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둘 다 옳은 것도 있고, 반대로 둘 다 그른 것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의겸과 김효원은 모두 사류이므로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38) 한영우, 앞의 책(2013), 29쪽.

39) 「사대사간 겸 진세척동서소(謝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율곡전서 2』(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7쪽.

“日者憲府之疏，始敢顯斥西人爲邪黨，以義謙爲小人，議論之激，極於此矣。孝元，臣所知也，義謙，亦臣所知也。論其人則皆可用也，語其失則可謂兩非也。若必以一人爲君子，一人爲小人，則臣未之信也。”

그리고 이때에도 율곡이 동서분당 이전부터 주장해온 군자, 소인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왜 그런가 하면, 대체로 이른바 조절(조제)⁴⁰⁾한다는 것은 둘 다 사류이므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는 군자이고 하나는 소인이라 한다면 물과 불이 한 그릇에 있을 수 없고, 향기나는 풀과 냄새나는 풀이 한 떨기에서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찌 군자와 소인이 함께 조절하여 나라를 보전한 일이 있었습니까.⁴¹⁾

즉, 율곡은 심의겸과 김효원, 나아가 이들이 소속된 당인이 모두 사류이므로 당(黨)을 초월하여 조절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류 가운데는 당을 불문하고 군자와 소인이 있을 수 있으니, 그 구분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율곡은 공론(公論)의 중요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심이 함께 옳다 하는 것을 공론이라 하며, 공론의 소재를 국시라 합니다. 국시란 한 나라의 사람이 의논하지 아니하고도 함께 옳다 하는 것이니 이익으로 유혹하는 것도 아니며, 위엄으로 무섭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삼척동자도 그 옳은 것을 아는 것이 곧 국시입니다.⁴²⁾

그리고 이러한 공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파를 초월하여 사류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자와 소인의 구분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군주는 소인을 경계하고, 군자를 중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율곡은 당시 비로소 사류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것은 외척을 배제해

40) 한문 원본에서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조제(調劑)”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절과 더불어 조제도 괄호 안에 병기(併記)하였다.

41) 「사대사간 겸 진세척동서소(謝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율곡전서 2』(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8쪽.

“何以言之, 夫所謂調劑者, 兩皆士類, 故可以相和矣. 若是一爲君子, 一爲小人, 則水火不同器, 薰蕕非一叢. 自古及今, 安有君子小人同調共劑, 而能保其國者乎.”

42) 「사대사간 겸 진세척동서소(謝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율곡전서 2』(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1쪽.

“人心之所同然者, 謂之公論, 公論之所在, 謂之國是. 國是者, 一國之人, 不謀而同是者也, 非誘以利, 非怵以威, 而三尺童子, 亦知其是者, 此乃國是也.”

가능해진 것이라 지적하고, 정치 영역에서 외척의 철저한 배제를 강조한다.

이처럼 동서분당 이후 율곡은 군자와 소인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나,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양시양비와 조제, 그리고 공론의 중요함에 대해 역설한다. 또한 군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론정치의 구현을 위해 군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단서를 붙인다.

한편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율곡은 사망하기 한 해 전인 1583년에 선조에게 「진시사소」를 올린다. 여기서 율곡은 동서분당 이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율곡의 거듭된 상소에도 불구하고 정파 간의 대립이 이미 율곡 당대에 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조정에 대해서 전하께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서(東西)가 당류(黨類)로 나눈 이후로 형색이 세워져서, 왕왕 당이 같으나 다르나에 따라서 좋아하고 미워하게 됨을 면치 못하여, 말을 만들어내고 일을 지어내는 자가 서로 구함(構陷)하여 마지않습니다. 벼슬아치로서 의논을 주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동인으로서, 보는 바가 편벽됨이 없지 못하고, 그 유폐(流弊)가 혹 어질고 어리석음과 재주가 있고 없음을 따지지 않고 오직 동인이나 서인이나를 분변하는 것만 힘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동인이 아닌 사람은 억제하고 서인을 배척하는 사람은 찬양하여, 이로써 시론(時論)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 진출한 경예(輕銳)한 사람은 출세하는 길이 서인을 공격하는 데에 달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다투어 일어나 부회(附會)하여 인재를 중상하고 사습(士習)을 허물어뜨리되 그것을 금제하지 못합니다. 아! 동서(東西) 두 글자는 본디 민간의 속된 말에서 나온 것이므로 신이 일찍이 믿을 수 없다고 웃어버렸더니, 오늘날에 와서 더욱 심한 근심거리가 될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⁴³⁾

V. 종합고찰

일반적으로 유교문화에 기반한 정파적 경향은 한국 언론의 가장 큰

43) 「진시사소(陳時事疏)」, 『율곡전서 2』(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73쪽.

“則殿下以爲何如耶。自東西分類之後，形色既立，往往未免以同異爲好惡，而造言生事者，交構不已。縉紳之主論者，多是東人，所見不能無偏，而其流之弊，或至於不問賢愚才否，而惟以分辨東西爲務。非東者抑之，斥西者揚之，以此定爲時論。於是士類之初進輕銳者，知發身之路，在於攻西。故爭起附會，傷人才壞士習，而莫之禁遏。嗚呼，東西二字，本出於閭巷之俚語，臣嘗笑其無稽，豈意式至今日，爲患滋甚乎。”

특징의 하나라 일컬어진다. 하지만 이미 1970년대의 덩샤오핑 시대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수정하여 실용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본산인 중국에서 언론은 정파적 경향을 띠지 않는다. 왜 한중의 언론문화는 이렇게 다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기서는 송대 이후 나타나는 한중의 대표적 봉당 관계 논의를 할 수 있는 옹정제와 율곡의 봉당론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먼저 송대 봉당론에서는 군자와 소인의 구분, 진봉과 위봉의 구분이 중시되며, 진봉은 많을수록 좋다고 규정된다. 하지만 옹정제는 이러한 송대의 견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특히 오류 가운데 충을 강조하여, 봉당은 모두 위봉이며 봉당을 구성하는 자는 모두 소인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비해 율곡은 동서분당 이전부터 계속 송대 봉당론에서 중시되는 군자와 소인의 구분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러한 가운데 동서분당 이후 율곡은 동인·서인은 모두가 사류이므로 서로 조제가 가능하며, 군자와 소인의 구분이 동인·서인이라는 당을 초월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공론에 의거한 정치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처럼 봉당 문제에 대해 옹정제와 율곡은 모두 당을 초월한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나, 옹정제가 군주 중심의 통합을 중시하고 있다면, 율곡은 당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류의 조제(調劑)를 중시하고 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한중 언론문화 전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먼저 이러한 차이는 만주의 여진족과 우리는 지리적·언어적·인종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이나, 무엇보다도 만주의 여진족이 통일국가를 이루기 시작하는 무렵부터 서로 사회구조가 크게 다른 국가로 발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생각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누루하치는 만주의 여러 여진족 부족을 통합한 후 여진족의 버일러들로부터 ‘한’의 존호를 받는다. 그리고 이때 군사조직인 팔기군을 편성한다. 이후 팔기군은 베이징(北京) 주변, 만주와 더불어 중국 본토의 각 성, 신장(新疆) 지역에도 주둔하게 되고, 이는 누루하치 시대부터 청조 말기까지 청조 황제의 중국 통치 기반이 된다. 그리고 팔기군의 구성원인 기인(旗人)은 청조의 특권계급으로,

이들은 모두 황제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었다.⁴⁴⁾

이처럼 청조는 국가의 근간 부분을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사조직이 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⁴⁵⁾, 옹정제의 어제붕당론은 사실상 이러한 만주족의 고유한 무인 조직문화에 입각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옹정제 시대에 청조에서는 언론 기능을 담당했던 도찰원(都察院)의 기능이 군주에게 종속되는 형태로 축소된다. 이처럼 옹정제 재위 무렵 청조의 언론구조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민일보》가 중국공산당의 기관지 형태인 지금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청조에서 이런 구조는 말기까지 그대로 지속된다.⁴⁶⁾

그리고 중국은 청조 이후, 다소의 과도기를 거친 후 지금의 중국공산당, 곧 신중국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청조와 신중국의 관계와 관련하여, 일본인 역사학자 이시바시 다카오(石橋崇雄)는 양자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신중국의 헌법 전문(前文)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각 민족의 인민이 공동으로 건설한 다민족 통일국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체제의 연원은 청조시대의 지배구조에 있다고 말한다.

즉, 청조는 건륭제 시대인 1750년대 후반에 최대 판도를 형성한다.⁴⁷⁾ 이는 종래의 중국 영역 개념에 변화를 초래하여 중국이 다민족국가라는 의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 점에서 신중국의 다민족성은 바로 청조의 다민족국가 형성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⁴⁸⁾

그런데 이러한 건륭제의 업적은 선대인 옹정시대의 축적 위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⁴⁹⁾, 특히 현대 중국이 다민족국가라는 이념적

44) 일본동아연구소 편, 서병국 역, 『북방민족의 중국통치사』[한국학술정보(주), 2010], 211쪽.

45) 마크 C. 엘리엇(2010)은 자신의 저서의 목적이 ‘팔기제와 만주족의 민족성과의 관계의 규명’이라고 말한다. 그는 팔기제가 만주족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청 전기에 만들어진 팔기제는 20세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고 말한다(89쪽).

46) 차혜원, 「청조 언론의 정치적 기능변화」, 『동양사학연구』 30호(1989), 127쪽.

47) 구체적으로 건륭제 시대에 중국 동북부, 중국 내지, 내몽골 지역,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베트 지역이 새롭게 ‘중국’, 곧 청조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시바시 다카오 저, 홍성구 역, 앞의 책(2009), 206쪽.

48) 위의 책, 40쪽.

49) 미야자키 이치사다 저, 차혜원 역, 앞의 책(2001), 207쪽.

차원의 인식 생성에 이바지한 건륭제의 업적은, 이제까지 살펴본 옹정제의 어제봉당론과 더불어 옹정제의 또 하나의 대표적 치적이라 일컬어지는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의 보급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선대인 4대 강희제 때, 청은 삼번의 난을 진압하고 비로소 중국 전체를 장악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족에 의한 반청복명의 기운은 강했고, 무엇보다도 중국 주변은 모두 오랑캐라고 보는 중화사상이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사상에 의하면, 중국을 지배하는 만주족인 청조도 오랑캐에 불과하며, 이러한 오랑캐가 중국을 통치할 수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옹정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반청복명운동 때문에 구속된 증정의 재판 과정이다. 이 재판 과정에서 옹정제는 증정의 중화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한다.⁵⁰⁾ 옹정제는 옹정 8년에 이러한 재판 결과를 정리한 대의각미록을 책으로 펴내어 널리 보급시키는데, 이는 당시의 일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⁵¹⁾ 일본인 연구자 이시바시 다카오는 당시의 이러한 상황을 ‘화이일가(華夷一家) 이념의 성립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는데, 이는 옹정제가 당시의 중국을 다민족국가로 새롭게 논리적으로 규정했다는 의미이다.⁵²⁾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신중국의 헌법 전문(前文)에 명기된 중화인민공화국이 다민족 통일국가라고 하는 인식은 사실상 옹정제의 화이일가라고 하는 사상적·이념적 기반 위에 건륭제 시기의 실제적 영토 확대가 결합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관련하여 옹정제의 또 하나의 대표적 치적인

50) 예를 들어, 옹정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증정은 『지신록』에서 중국의 영토는 이적들의 땅에 둘러싸여 있는데, 중국 땅에 가까운 곳에 사는 이적들에게는 사람의 기운이 조금 남아 있지만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금수(禽獸)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옹정제는 도대체 이와 같은 말이 사실일 수 있는가? [...] 구주(九州)와 사해(四海)로 구성된 세상은 엄청나게 넓어서, 중국-주민들이 얼마나 넓게 여기는가에 상관없이—은 온 천하의 10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또한 동서남북 그 어디에나 동일한 이(理)와 동일한 기(氣)가 있을 뿐인데, 어째서 중화(中華)에 하나의 천지(天地)가 있고 이적(夷狄)에게 또 다른 천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J. D. Spence(2001), *Yongzheng, Emperor of China, 1677-1735*; 조너선 D. 스펜서 저, 이준갑 역, 『반역의 책: 옹정제와 사상통제』(이산, 2004), 226쪽.

51) 위의 책, 300-305쪽.

52) 이시바시 다카오 저, 홍성구 역, 앞의 책(2009), 247쪽.

대의각미록에 관한 검토가 다소 길어졌으나, 이러한 논의는 종합하면 결국 융정제의 중국 문인 붕당문화 비판이 이념적 차원에서 현재와 같은 중국 언론구조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에서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된 것은 원의 간섭으로 고려 왕실의 권위가 크게 약화된 고려 말 공민왕 시기이다. 이 무렵 고려에서는 승문관의 옛터에 성균관이 세워지고, 초대 성균관 대사성인 목은 이색을 중심으로 다수의 성리학자가 배출된다.⁵³⁾

이후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적 성향의 사대부와 이성계가 결합하여 조선왕조가 건국되고, 역불승유의 국시 아래 세종 무렵에는 집현전이 설치된다. 20세로 요절한 예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성종 무렵, 세조 때 폐지되었던 집현전은 홍문관의 형태로 다시 복원된다. 그리고 왕의 경연도 담당할 당대 최고의 유교 이념 기관이었던 홍문관은 성종 10년대에 언관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⁵⁴⁾

이러한 가운데 주로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이 홍문록(弘文錄)의 후보가 되어 사헌부 사간원과 홍문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진다.⁵⁵⁾ 그리고 이들의 고유 권한, 즉 탄핵, 서경 등의 권한이 실질화되어 조선 전기에는 국왕, 재상과 더불어 언론 삼사가 권력의 한축을 구성하는 고유한 구조가 만들어진다.⁵⁶⁾ 이는 앞에서 살펴본 청조와 사실상 정반대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다른 구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조정에 붕당의 움직임이 있다는 이준경의 유차가 올라오고 이후 실제로 의정부의 사인(舍人), 승정원의 승지, 그리고 언론 삼사의 낭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이조전랑직을 두고서 선후배 사림 간 대립이 발생하자, 율곡의 붕당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율곡 생존 시대에 현실은 이미 율곡이 주장한 이상과 떨어진 상태였고, 율곡 사후 붕당 간 대립은 더 심해져 사실상 공론이 당론에 종속되는 상황이 지속된다.⁵⁷⁾ 해방 이후도 우리 사회에서는

53) 이기동, 『이색: 한국 성리학의 원천』(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15쪽.

54) 최승희, 『조선초기 언론사연구』(지식산업사, 2004), 278쪽.

55) 이성무,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목숨 걸고 직언하고 가차 없이 탄핵하다』(청아, 2009), 117쪽.

56) 조선 후기 이중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나라(곧, 조선왕조)의 벼슬 제도는 고대와 달라, 비록 삼공과 육경을 두어 모든 관청을 감독 통솔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점은 대간에 두고 있다.” 이중환 저, 이익성 역, 『택리지(擇里志)』(을유문화사, 1994), 150쪽.

57) 예를 들어 조선 후기 1806년 무렵에 정동유는 군자당(君子黨)이 자사자리(自私自利)에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했으며,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에는 보수, 진보 간의 이념 대립이 뚜렷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화 이후에는 《한겨레》 신문 등도 새롭게 창간되어, 진보 진영도 스스로의 의견 개진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언론은 계속해서 정파적 경향을 띠어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에서도 봉당 관련 전통 요인이 사실상 현재의 언론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소 역설적이나 이런 상황은 율곡의 봉당론, 특히 조제와 공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더 추구해야 할 하나의 가치 규범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특히 산업화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중간층이 크게 성장하고, 민주화와 더불어 국민 모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렸으며, 무엇보다도 사회가 크게 다양화, 다원화된 현재, 맹목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편협하게 자기나 자기가 속한 그룹만 옳다고 주장한다면 결코 우리 사회 다수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에 더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빠질 위험성이 있음을 논한 명말청초의 저명한 문인 위희(魏禧)의 『위숙자집(魏叔子集)』을 인용하여 조선의 당벌(黨伐), 곧 군자당이 자사자리에 처해 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근세에는 그러하지 않다. 군자라고 불리어지는 자가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능히 청렴결백하게 군세고 곧아서 높다랗게 뛰어난 모습으로 천하에 큰 명성을 떨친다. 남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남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 그리하여 그의 명성이 날로 성대하여지고 권력이 날로 그에게 돌아가게 되면 곧 자기와 당파가 다른 자를 제거하기 시작하여 오직 그 제거 작업이 급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자기와 당파가 다른 자를 제거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자기와 같은 문생이나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관리를 추천해 끌어들이고 칭찬하며 기리는 일에 전력을 기울인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정에 전열을 펴게 한다. 이에 자기와 당파가 같은 자가 많으면 자기와 당파가 다른 자를 제거하는 데에 더욱 힘쓴다”(정동유저, 남만성 역, 『주영편(晝永編) 하(下)』, 을유문화사, 1971, 86쪽). 또한 한형조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선의 파당과 당쟁은 식민사관이 부당하게 준 이름이 아니다. 그것이 조선 후기의 어김없는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 균형으로 호도하거나 미화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한형조, 『왜 조선 유학인가』, 문학동네, 2008, 47쪽).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 「논붕당소(論朋黨疏)」。『율곡전서 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붕당론(朋黨論)」。『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 2』, 전통문화연구회, 2014.
- 「사대사간 겸 진세척동서소(謝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율곡전서 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성학집요(聖學輯要)」。『율곡전서 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유승상에게 보내는 편지 1(與留丞相書1)」。『주자대전』 28권,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대구한의대학교 국제문화연구소, 2010.
- 「유승상에게 보내는 편지 2(與留丞相書2)」。『주자대전』 28권,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대구한의대학교 국제문화연구소, 2010.
- 「진시사소(陳時事疏)」。『율곡전서 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御製朋黨論」。『世宗憲皇帝實錄』, 北京: 中華書局出版, 1986.

2. 단행본

- 곽정충 저, 황일권 역, 『구양수 평전』. 학고방, 2009.
- 김택환 · 강만석 · 송종길 · 최은경 · 이재민 · 김성경, 『중국의 언론제도 및 산업 현황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 남경태, 『종횡무진 동양사』. 그린비, 2013.
- 니우산 · 삐산쓰 저, 임찬혁 역, 『(소통의 정치학) 상소: 중국편』. 달과소, 2008.
- 등예권 저, 황보경 역, 『치국』. 시아출판사, 2004.
- 미야자키 이치사다 저, 차혜원 역, 『옹정제』. 이산, 2001.
- 미우라 쿠니오 저, 김영식 · 이승연 역, 『인간 주자』. 창작과 비평사, 1996.
- 쉬홍썩 · 야오룽타오 저, 이진영 역, 『천추홍망: 송나라』. 따뜻한손, 2010.
- 이기동, 『이색: 한국 성리학의 원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 이상희, 『조선조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현상 연구』. 나남, 1993.
- 이성부,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목숨 걸고 직언하고 가차 없이 탄핵하다』. 청아, 2009.
- _____, 『영의정의 경륜: 이준경 · 이산해 · 오윤겸 · 이경석』. 지식산업사, 2012.
- 이시바시 다카오 저, 홍성구 역, 『대청제국 1616-1799』. 휴머니스트, 2009.
- 일본동아연구소 편, 서병국 역, 『북방민족의 중국통치사』. 한국학술정보(주), 2010.
- 이중환 저, 이익성 역, 『택리지(擇里志)』. 을유문화사, 1994.
- 정동유 저, 남만성 역, 『주영편(晝永編) 하(下)』. 을유문화사, 1971.
- 최승희, 『조선초기 언론사연구』. 지식산업사, 2004.

한영우, 『율곡 이이 평전』. 민음사, 2013.

한형조, 『왜 조선 유학인가』. 문학동네, 2008.

Elliott, M. C.(2001),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마크 C. 엘리엇 저, 이훈·김선민 역,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2010.

Spence, J. D.(2001). *Yongzheng, Emperor of China, 1677-1735*; 조너선 D. 스펜서 저, 이준갑 역, 『반역의 책: 옹정제와 사상통제』. 이산, 2004.

3. 논문, 기타(사전)

김영수, 「조선 공론정치의 이상과 현실(Ⅰ): 당쟁발생기 율곡 이이의 공론성치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2005.

박노현, 「『옹정황제(雍正皇帝)』에 나타난 옹정제(雍正帝)의 치국지책(治國之策)」. 『한문고전연구』 13권 0호, 한국한문고전학회(구 성신한문학회), 2006.

배윤경, 「옹정제의 통치책: 용인행정을 중심으로」. 『이대사원』 14권,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77.

손흥철, 「栗谷(율곡)의 經世論(경세론)과 疏通(소통)의 精神(정신)」. 『율곡학연구』 27권, (사)율곡연구원(구 사단법인 율곡학회), 2013.

야마다 에이코, 「율곡 이이의 봉당론: 비교봉당론사를 위한 하나의 시론」. 『한일공동연구총서 1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

이개석, 「옹정시대 봉당문제에 대하여」. 『복원사림』, 경북사학회, 2013.

이상익, 「율곡학 학술회의 논문: 율곡의 공론론과 그 현대적 의의」. 『율곡학연구』 5권, 2002.

_____, 「율곡의 공론론과 그 현대적 의의」. 『율곡학연구총서: 논문편』, 율곡학회, 2007.

이상희, 「이율곡의 커뮤니케이션 사상」. 『율곡학연구총서: 논문편』, 율곡학회, 2007.

이윤복, 「오모테와 우리(表と裏)」.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편, 『일본문화사전』, 문, 2010.

정연구, 「동양의 언론사상과 언론방식에 관한 연구: 율곡의 언론사상을 중심으로」. 『연세사회과학연구』 2권 0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0.

_____, 「동양의 언론사상과 언론방식에 관한 연구」. 『율곡학연구총서: 논문편』, 율곡학회, 2007.

차혜원, 「청초 언론의 정치적 기능변화」. 『동양사학연구』, 동양사학회, 1989.

황의동, 「현실인식과 율곡 철학」. 『동서철학연구』 제30호, 한국동서철학회, 2003.

홍원식·김은정, 「TV 미디어 비평의 어제와 오늘: <미디어비평(KBS)> 10년, 내용분

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4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3.

宮崎市定(미야자키 이치사다), 「御製朋黨論」. 『(中国文明選 11) 政治論集』, 東京:
朝日新聞社, 1971.

石橋崇雄(이시마시 다카오), 「滿文 han i araha gucu hoki i leolen. (御製朋黨論)」.
『国士館史學』, 1996.

국 문 초 록

한국 언론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유교 문화에 기반한 정파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교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 이미 덩샤오핑 시대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수정하여 실용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송대 이후 나타난 한중의 대표적 봉당론, 곧 옹정제의 어제봉당론, 그리고 율곡 이이의 봉당에 관한 상소문을 비교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옹정제의 어제봉당론에서는 송대에 제기된 견해에 대해 이의 제기가 이루어져 봉당은 모두 위봉, 봉당을 구성하는 자는 모두 소인이라고 규정되며, 이와 더불어 오류 가운데 특히 충이 철저하게 강조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율곡의 봉당에 관한 상소문에서는 당시 조정의 동인·서인은 모두가 사류이므로 서로 조제가 가능하며, 군자와 소인의 구분이 당을 초월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고,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공론에 의거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옹정제의 문인 봉당문화 비판이 이념적 차원에서 현재와 같은 중국 언론구조의 출발점일 수 있으며, 다소 역설적이나 민주화된 한국의 언론 상황에서도 율곡의 공론사상은 여전히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투고일 2017. 6. 20.

심사일 2017. 7. 6.

게재 확정일 2017. 8. 24.

주제어(keyword) 옹정제(Yongzheng Emperor), 율곡 이이(Yulgog Yil), 봉당론(Theory of Bungdang, political faction), 상소문(Sangso, Memorial), 공론(Kongron, public opinion), 중국(China), 한국(Korea)